

당권 후보 3인 인터뷰

민주평화당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책임자임을 후보로 나서는 정동영(4선), 유성엽(3선), 최경환(조선)의원을 각각 만나 이들의 비전과 당 대표 당선 이후 당 운영 방향 등을 들어봤다.

“강한 추진력과 경험으로 생사기로 선 당 위기 돌파”

■정동영 의원

-왜 정동영이어야 하는가.
▲우리 민주평화당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당의 존재감이 없다. 존재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지도력이 필요하다. 야당은 90%가 대표의 리더십에서 만들어진다. 강한 리더십은 방향성, 추진력, 경험이 중요하다. 가령, 배가 독도를 가려면 동쪽을 향해 가야 하고, 풍랑을 넘어서는 추진력이 있어야 하고 항해 지도를 잘 읽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3가지 덕목을 통해 소수 정당으로도 정권을 창출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고, 강력한 추진력과 경험으로 난관을 돌파하겠다.
-당 대표가 된다면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문재인 정부 탄생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들도 갑질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는 사라지고, 경제의 어려움이 현 정부 지지율 하락의 핵심이 됐다. 민주평화당은 대안을 제시하는 선도정당이 될 수 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은 맞다. 하지만 '종합선물세트'로 가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올려줘야 한다.
-경제개편이 거론되고 있다. 당 대표가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비례민주주의를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다. 경제개편에 앞서 선거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하고, 민주평화당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을 견인하고 한 국당을 설득할 수 있는 평화당의 역할이 있다. 선거제도 개혁은 각 당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미 선관위가 권고한 방안이다. 현재 235석의 지역구는 그대로 두는 대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평화당의 지지율이 최약이다.
▲농어민,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을 강력하게 대변해야 한다. 이는 평화당 창당 강령에도 포함돼 있다. 평화당은 강령을 통해 다당제 민주주의, 재벌개혁, 복지 국가 등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동안 실천이 부족했다. 지금 노회찬 의원 추모 물결이 뜨거운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의롭지 않다는 반증이다. 당 대표가 되면 사회 약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정당을 만들겠다.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현 정부의 남



선거제도 개혁 서둘러야 사회약자 위한 정당 만들 것 호남 상생발전 힘 모으겠다

북문제 정책을 평가한다
▲현정부가 큰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우리와 미국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이며, 북한은 평화협정을 원하는 데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 과거 통일부 장관을 맡아 9-19 합의가 이끌어 냈는데 이는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북미수교'를 교환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너무 느슨해졌다는 점이다. 이 기간 동안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와 공조가 이뤄져야 했다. 또 중국이 핵포기가 아닌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광주와 전남-북의 상생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호남을 아우르는 발전 전략은.
▲평화당은 상임위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아 호남지역 농어민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농어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SOC 확충에도 모든 힘을 모으겠다. KTX 무안 공항 경우도 평화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당 대표가 되면 호남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광주-전남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호남 상생과 공존' 그리고 '광주-전남-북 공동 발전'에 적극 나서겠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당 이름 빼고 모두 바꿔 당 정체성 다시 세우겠다”

■유성엽 의원

-유 의원이 평화당 차기 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는.
▲평화당은 정부 여당의 치열한 경쟁자이자 실력 있는 대안정당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촛불정신을 계승함과 동시에 역사와 시대 앞에 주어진 우리 평화당의 정치적 사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명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 그 일을 유성엽만이 할 수 있다.
-유성엽표 평화당의 모토와 비전은.
▲'국민의 경제생활에도 평화'를 이란 모토를 가지고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 경제정당-민생정당-민주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 심화와 이에 따른 정부여당의 정치적 난관에 대비, '경제정당 평화', '먹고 사는 것은 1등인 평화당'으로 국민 마음 속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호남정치가 위기라는 지적이 있다. 해법은.
▲호남에 뿌리와 가치를 둔 정당, 호남을 대변하는 정당인 평화당의 위기가 바로 호남정치의 위기다.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선 평화당이 새로운 변화를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새로운 변화에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추진력과 관용이 있는 새로운 간판이 필요하다.
-현 문재인 정부와 관계설정 어떻게 해야 하나.
▲협치든 연정이든 지금은 시기상조다. 먼저 우리 당의 힘과 실력을 키워야 진정한 정치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경제에 집중하여 국민으로부터 실력을 인정받는 정책정당-민생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우선이다.
-청와대가 협치정부 제안을 했는데.
▲청와대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지 않았다. 정식적인 제안이 온다면 제안의 내용을 파악해서 응할지 말지를 당에서 논의를 해야겠지만, 청와대의 협치 내각 발안에는 구체성이 떨어진다. 협치 내각이라는 것이 연정과 같은 의미인지, 소연정 또는 대연정인지 불명확하다. 협치 내각의 전제는 정책협치, 즉 정책연대다. 정국들과유으로 불속 작은 당에게 장관직 1-2개를 던져주는 것은 의미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일이다.
-전북에서 정동영 의원과 경쟁하는 구도다. 정 의원에 비해 본인이 가진 차별성과 경쟁력은.
▲정 의원의 능력과 경륜은 누구나 인



평화당 위기가 호남정치 위기 정부와 연정은 시기상조 패기와 열정이 나의 경쟁력

정하는 바다. 다만, 지금의 평화당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람들은 떠오르는 해를 보아 새아침이 온 것을 깨닫는다. 기존 간판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제 경쟁력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인 경쟁력은.
▲저는 정읍시장과 3선의원, 그리고 국회 교문위원장을 하면서 쌓아온 경력이 있다. 민주당의 텃밭, 호남의 중심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두 번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유 유를 장조해낸 저력이 있다. 또한 저는 경제 전문가다. 누구보다 열심히 국가경제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해 왔다.
-평화당 대표가 된다면 광주-전남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룰 생각인지.
▲정부와 광주시가 하려 하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기업과 지역의 혁신적인 상생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당장 현대차 노조가 반대하는 등의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남은 각종 에너지 사업이 집약된 에너지 벨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의 발전과 지역민의 이익이 공존할 수 있도록 평화당이 정책 균형자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변화 없이는 당 미래 없어 조선 대표돼 활로 찾겠다”

■최경환 의원

-조선의원으로 당권 도전에 나섰는데.
▲강력한 변화는 평화당에 정치적 생존 조건이다. 변화 없이는 평화당의 미래는 없다. 차기 총선-대선을 기약할 수 없다. 정동영-유성엽 카드는 무난할 수 있다. 하지만 변화를 동력으로 하는 새로운 도약은 어렵다. 조선 대표로서 변화를 주도하며 정치 판을 흔들며 활로를 찾아 내겠다.
-전반적인 판세를 분석해달라.
▲혼란이지만 승리를 확신한다. 당원들과 호남 민심은 평화당의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변화를 원하는 당원들의 표심은 결국 조선 대표라는 초대형 이슈를 만들어 낼 것이다. '변화는 최경환'이라는 흐름이 강고하게 형성됐다.
-평화당의 현실을 진단한다면.
▲현재의 상태로 계속간다면 차기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살아남기 어렵다. 오히려 총선 이전에 당이 존재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몇 명 정도는 살아남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불가능하다. 환골탈태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평화당에는 미래가 없다.
-대표가 된다면 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당을 삼각 축으로 운영하겠다. 조선들이 당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하겠다. 중진들은 국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정동영, 천정배 의원 등 평화당의 대권 주자를 조기에 내세우겠다. 그들의 개혁성과 비전은 여권 주자들에게 비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 단지 그들은 호남 출신이며 호남이 지역구라는 것이 한계다. 그들과 함께 평화당에 섞여진 지역주의의 한계를 깨뜨려 나가겠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타계에 대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
▲참으로 충격적이다. 노 의원은 진보적 가치와 진보 정당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가 추구해온 일관된 진보적 가치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평화당도 민생과 현장에 매진하는 인재들을 키우는 역할을 하겠다.
-경제개편에 대한 전망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단 민주당은 패권화로 갈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호남에 당권도, 대권도 주지 않을 것이다. 패권화에 대한 역풍은 상당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결국 자유한국당과 보수 재편에 나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당은 뿔뿔 뿔칠 것이다



조선들이 당 혁신 주도해야 여권 협치 제안 진정성 없어 호남정치 위상 회복시킬 것

다. 또 경제개편 과정에서 외형도 키울 것이다. 무소속의 이용호, 손금주 의원을 반드시 데려오겠다. 바른미래당의 '호남 6인방'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권의 협치 내각 제안과 연정에 대한 입장은.
▲시대적 과제를 위한 협치는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연정은 어려운 것이다. 연정은 국정 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여권의 제안은 최소한의 예의도, 진정성도 없다. 장관 몇 자리 주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시대를 위한 구체적 전략과 방향성도 보이지 않는다. 대연정인지, 소연정인지도 명확치 않다. 대충하겠다는 것 인지 한심하다. 다만 민주당이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 나선다면 연정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호남 당원들과 지역민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평화당은 작지만 뿔뿔 뿔쳐 호남의 꿈, 시대의 꿈을 만들어 내겠다. 호남의 자존심과 미래를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호남 정치의 위상을 회복시키겠다. 최경환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선봉에 나서겠다.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hinsegye Eye Clinic. Text: '한결같은 믿음, 좋은 시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Services include 2013 3D SMILE surgery, 2nd generation SMILE equipment, Best Skilled doctor selection, and laser cataract surgery. Contact: 1566-9988.

Advertisement for 'Nongchon' solar power subsidies. Text: '농촌의 새로운 희망'. Subsidies for solar power (200KW) with 1.75% interest and 90% support. Contact: 1588-1543.